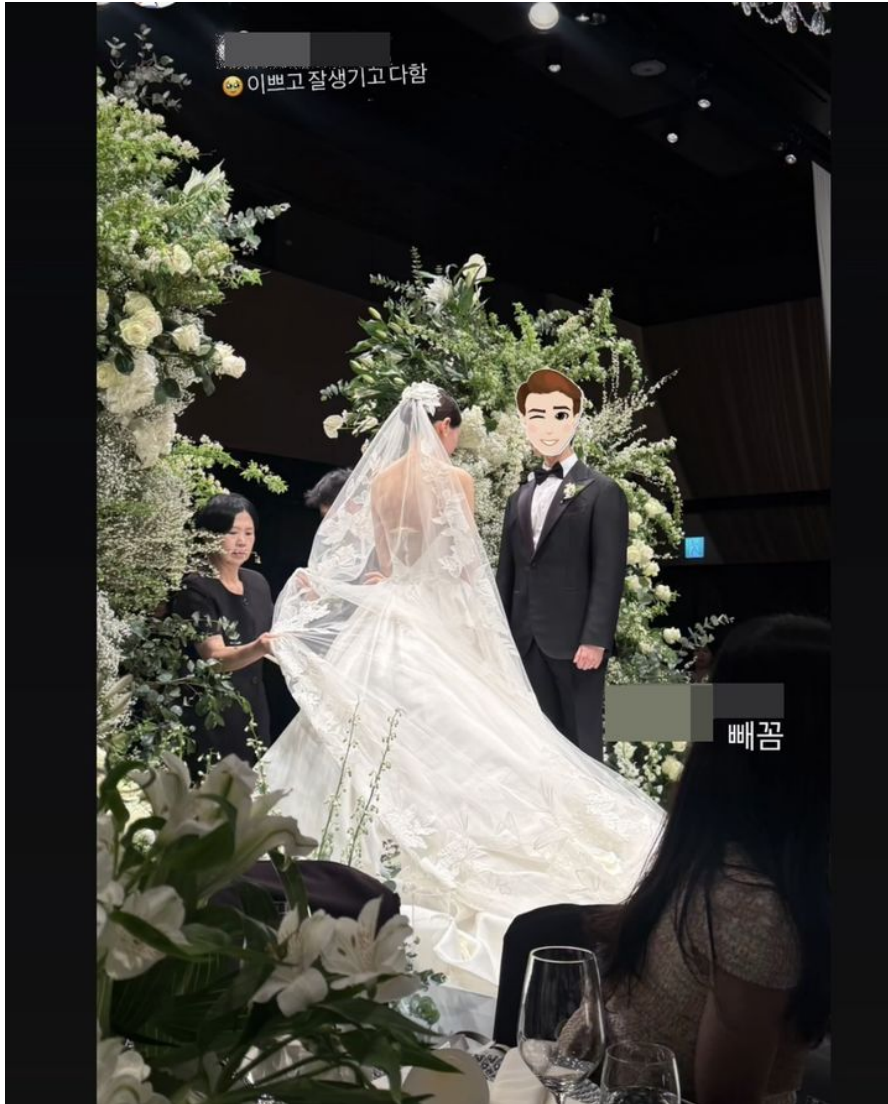


박은영 셰프, '하석진 닮은 꼴' 의사 남편 실물 첫 공개

등록 2026.05.18 07:48:10



[서울=뉴시스] 박은영 셰프. (사진 = 인스타그램 캡처) 2026.05.1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재훈 기자 = 넷플릭스 요리 예능물 '흑백요리사'의 '중식여신' 박은영 셰프의 결혼식 현장이 소셜 미디어를 통해 공개되며 화제를 모으고 있다. 특히 베일을 벗은 신랑의 '하석진 닮은꼴' 비주얼이 눈길을 끈다.

18일 하객들의 소셜 미디어를 통해 전날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박은영의 비공개 결혼식 사진이 잇따라 공유됐다.

사진 속 박은영은 순백의 튜브톱 실크 드레스를 입고 단아한 자태를 뽐냈다. 박은영도 지인들이 소셜 미디어에 올린 사진들을 자신의 소셜 미디어를 통해 직접 공유했다.

가장 주목받은 것은 흰칠한 외모의 신랑이다.

앞서 박은영이 유튜브에서 "컨디션 좋을 때 배우 하석진을 닮은 훈남"이라고 소개했던 의사 남편은 실제 하석진을 연상케 하는

훈훈한 외모로 하객들의 탄성을 자아냈다는 후문이다.

이날 예식은 두 사람의 국경을 넘은 장거리 연애 끝에 결실을 맺은 자리다.

가수 아이비와 최현석 셰프가 축가를 맡았다. 김성주, 윤남노, '이모카세' 김미령 등 방송과 요리계 동료들이 대거 참석해 두 사람의 앞날을 축복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ealpaper7@newsis.com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